

민천일보

제2850호

2024년 10월 27일 | 연중 제30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운양동 바다의 별 본당>, 2017년 설립

입당송 | 시편 105(104),3-4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제1독서 | 예레 31,7-9

화답송 | 시편 126(125),1-2ㄱ-2ㄴ-3.4-5.6(◎ 3 참조)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히브 5,1-6

복음 환호송 | 2티모 1,10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

복음 | 마르 10,46ㄴ-52

영성체송 | 시편 20(19),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이주의 **녹색순교**

에너지 절약 마크 제품 사용하기



소리주보 QR

중요한 건,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평화를 빕니다!

복음에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 평일 미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만났는데요. 저에게는 마르타가 유독 짝해 보였습니다. 마르타는 예수님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습니다.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루카 10,40 참조) 했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타가, 보기에 안타까우신지, 이름을 연신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루카 10,41)

예수님을 위해서 온통 애썼는데, 그 마르타한테서 예수님은 정작 ‘염려’와 ‘걱정’만을 읽어내십니다. 참 아찔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좋은 일을 해도 걱정과 염려에 빠지면, 그래서 돕지 않는 동생 때문에 화만 난다면, 그야말로 ‘공염불’이 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지 바르티매오에게서 ‘믿음’을 읽어내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외치고, 사람들이 꾸짖고 막아서도 더 크게 외칩니다. 전 재산 같은 겔옷마저 던지고, 예수님께 가서 치유를 청합니다. 그도 애를 썼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선언합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르 10,52)

한편으론 다행입니다. 어떤 때는 바르티매오처럼, 정말로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사제 생활 30년입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받은 은혜가 과분해서, 미약하나마 애를 썼는데요. 문득 궁금합니다. ‘분명 교회 일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뭘 읽어내실까?’ 일하면서도 다음 일을 걱정하고, 횡수와 양으로 승부를 보려 하고, 안 되면 실망하고, 잘 되면 우쭐하며 살았습니다. 바르티매오로 시작해서 줄곧 마르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염려와 걱정은 일종의 불신앙 같습니다. 포도원 소작인이 자신을 주인인 듯 착각할 때 취하는 태도

인 것이죠.(마르 12,1-12 참조) 바르티매오는 뭐가 달랐던 걸까요? 분명한 건, 그에게는 걱정과 염려, 짜증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누가 막아도 맞서지 않고, 그저 자기 뚝의 길을 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믿음을 읽어내신 걸까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갈라 5,6)이라 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사랑만이 우리 뚝인가 봅니다. 사랑으로 한 거면, 실패도 이미 성공인 겁니다. 사티시 쿠마르라는 환경·평화운동가가 있습니다. 그에게 ‘당신의 활동으로 지구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람은 지구를 사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사랑할 것만 걱정하라’는 말씀에,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공소사목 소임을 맡으면서 붙들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1코린 3,6)

얼마나 자랄까, 열매 맺을까 걱정하는 건, 우리 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마르 12,33) 그때그때 숨 쉬고, 먹고, 일하고, 걷고,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도우면서 살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지 않을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행동을 계획하지, 결과를 계획하지 않는다.”-데니스 홀리



정연섭 베드로 신부
공소사목 전담

2025년 희년을 위한 신자들의 기도

성년(聖年)을 위한 하느님 백성의 기도가 지니는
중요성

이번 기도의 해 동안 하느님 백성의, 신자 저마다의 양성과 기도의 노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개인이 하느님과 맺는 참다운 친교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 사이에서 이루는 참다운 친교의 행위가 되어, 그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울려 퍼지게 합니다.

가톨릭 전통은 공동체 기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여 왔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안에서 믿음 참여의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성인들의 통공에 참여하는 교회의 전구 기도는 교회의 일치에 대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전 세계 신자들이 희년에 선포되는 용서를 체험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줄 영적 회심을 향한 열망을 함께 나누며 기도에 동참하는 성년에는, 이러한 교회의 일치가 각별한 방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2025년 희년을 준비하는 신자들의 기도의 본보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쓰신 ‘2025년 희년 기도’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히 주일 미사 때에 이 기도문을 다 함께 바치면 좋겠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특별한 은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가 이번 회차를 끝으로 연재가 마무리됩니다.

· 2025년 희년을 준비하는 2024년 ‘기도의 해’ 사목 자료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년 희년 기도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펼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갈갈수녀님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세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천주교 청수 성당의 절대적 존치 및 보존을 위한 천주교 인천교구 선언문

2024년도 7월 31일 국토부는 김포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계획으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대사업을 시작하고 결정함에 있어 그 지형 안에 포함된 천주교 청수 성당과는 사전에 일체 협의가 없었다. 막무가내로 거룩한 성전을 주택지역에 편입, 기존 성당을 파괴하려는 무참하고 가혹한 행위는 참으로 경악하기 이를 데 없다. 이에 천주교 인천교구 신자들은 아연실색할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을 더 이상 좌시하거나 묵과할 수 없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이에 거스르는 합당한 주장을 펼쳐 관철하는 가운데 어떤 난관이 닥쳐도 끝까지 청수 성당을 사수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바이다.

천주교 인천교구 청수 성당은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7년 김포 운양동에 자리하고 있을 때 김포시의 한강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인해 강제 수용된 바 있다. 그로 인해 청수 성당은 예상치 못한 온갖 시련과 불편, 혼란과 고통을 겪은 다음 부득불 현 지형으로 본당을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어렵사리 성당을 신축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김포 장기동의 전 지역을 담당하는 청수 성당은 2024년 현재 12,000명의 신자들을 사목하는 대단위 성전으로 어렵게 뿌리를 내려 지역사회의 정신적, 영적 보금자리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으로 또다시 성당이 강제수용된다면 그 여파로 인한 해악과 갈등은 이루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과 발전도 좋지만 인간의 영적, 정신적, 심리적 삶을 중시하며 양육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온 천주교 종교시설인 성당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발전이란 미명하에 개발과 발전의 무차별적인 희생물로 삼으려 한다면 이는 더 이상 묵과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반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행위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바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새로운 신도시에 43,000가구가 들어오는 인구 십만 이상의 새로운 콤팩트 시티가 형성되게 되면 천주교 신자만 새로 15,000명이 그곳 도시에 자리하면서 최소 5,000명을 수용하는 성당이 3개나 더 필요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기에 국토부나 LH는 오히려 이를 사전에 인지, 합당한 천주교 종교부지를 마련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톨릭의 풍요로운 삶을 대변하는 국가 부서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천주교 인천교구는 청수 성당이 개발계획에 편입, 수용되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며 기존의 성당이 절대적으로 존치되고 유지, 보전되어야 함을 명백히 선언하는 바이다. 특히 청수 성당이 신자들의 굳건한 신앙생활은 물론 주변에 행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 및 약자를 우선시하며 동행하는 일련의 사회사업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본 성당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사업에서 마땅히 제외되어 기존의 종교활동을 계속해서 원활히 수행되는 경우에만 함께 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삶 역시 평화를 누리며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LH가 주도하는 개발사업 역시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따라서 천주교 인천교구는 중지를 모아 모든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청수 성당의 절대적 존치를 위해 기도하며 그 뜻을 먼저 이름, 주소 등을 알리는 용지에 기록, 기꺼이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합의, 작정하였음을 알리는 바이다.

2024년 10월 15일

+ 정 신철

천주교 인천교구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천주교인천교구
DIOCESE OF INCHEON



제1회 하늘땅물벗 전국대회

교구 생태환경사목부



9일(수) 제1회 하늘땅물벗 전국대회가 “피조물과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명동 성당 교스트홀에서 열렸다. 인천교구에서는 생태환경사목부 오병수 스테파노 신부를 비롯하여 15개 본당에 소속된 145명의 벗들이 참석하였다. 하늘땅물벗 한국협의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국대회는 한국협의회 담당 이재돈(=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의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의 정신’ 주제 강연과 정성일 신부(=영종 본당 주임)의 한 본당에서 하늘땅물벗 13개 벗을 발족한 이례적인 본당 설립 사례를 발표하였다. 전국 회원들은 이날 명동 일대를 돌며 기후정의 팻말 시위와 거리 행진에 나섰다. 이어 각 교구 하늘땅물벗 역사와 현황 소개 뒤 서울대교구 총대리 구요비 주교 주례로 파견 미사가 봉헌되었다.

묵주기도의 밤

교구 홍보기자 변훈 바오로



18일(금) 인천 바다의 별 레지아,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체나콜로는 교구 성모 순례지에서 묵주기도의 밤 미사를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레자 주교가 집전으로 봉헌하였다. 450여 명이 함께 한 미사 강론에서 김석훈 안드레아 신부(=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전담)는 “여러분들이 물려주셔야 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 이 기도회 힘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묵주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생각하자”고 전하였다. 미사에서 정신철 주교는 어린 아이들과 부모를 제대 위로 올려 주님의 기도를 함께 노래하며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제15차 선교사의 날

교구 홍보기자 장창규 루도비코



19일(토) 교구 선교사목부(=부국장 이현창 안드레아 신부)는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제15차 선교사의 날을 진행하였다. 선교체험 나눔(=성령쇄신봉사회 회장 차선미 스텔라) 시간을 시작으로 점심 후 레크 및 찬양 콘서트(=정겨운과 친구들)가 펼쳐졌다. 파견 미사에서 주례자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레자 주교는 “우리 교구의 나 굴리엘모 주교님과 교동 공소에 방인이 신부님을 통해 선교사는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고, 비신자와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간다”며 복음으로 무장된 삶 자체가 곧 복음이 되는 증거자로 선교사의 자세를 성찰하기를 권하였다. 이어진 선교구호 시상식에서는 청라3동(최우수), 부평1동(우수) 본당이 수상하였고, 개인으로는 홍유정 데레사(부평1동, 최우수), 강선미 로사리아(부평1동, 우수)가 수상하였다.

제30회 교리교사의 날

교구 홍보실



20일(주일) 교구 청소년사목국(=국장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은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각 본당 교리교사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0회 교리교사의 날을 진행하였다. 박종진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청소년사목국 부국장)의 사회로 1부에서는 청소년부 밴드 주경야락 2기와 유소년부 레크레이션팀 알리의 공연과 3, 5, 7년 근속 교리교사 표창식이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유소년부 밴드팀 주찬찬 성가 노래와 반주로 총대리 이용권 베드로 신부가 집전하여 미사가 봉헌되었다. 이용권 신부는 “교리교사의 사명을 되새기며 하느님 존재의 신앙 체험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3부에서는 신입 교리교사 우수상(5명) 시상과 10년(31명), 15년(13명), 20년(9명), 25년(이기자 안나, 검단동) 근속 교리교사 표창식과 지난 1월 바티칸에서 교리교사 직수여를 받은 교리교사 2명에게 직수여증이 전달되었다.

‘이승훈베드로길’ 명예도로 지정

8일(화) 인천시 남동구는 한국천주교 첫 세례자인 이승훈 베드로를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붙인 명예도로를 지정하였다. 장수동 이승훈 묘역 인근 만수역에서 인천대공원역 도로 1.8km 구간을 ‘이승훈베드로길’로 명명한 뒤 도로명판과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_시점(백범로 108)~종점(수인로 3677)



| 미사 안내 | '위령의 날' 선종사제 및 모든 연령들을 위한 미사

11월 2일(토)은 '위령의 날'입니다. 11월 1일(금)부터 8일(금)까지 정성껏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죽은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 조건: 고해성사, 미사참례,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 백석 하늘의 문 묘원

11/2(토) 11시 (인천시 서구 드림로 472 하늘의 문 성당)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 집전

· 마전동 묘원

11/2(토) 11시 (인천시 서구 마전동 산 164)
총대리 이용권 베드로 신부 집전

· 포동 묘원

11/2(토) 11시 (경기도 시흥시 신현로12번길 20-16)
포동 성당 주임 김훈겸 요한 보스코 신부 집전

· 김포 매곡의 모후 묘원

11/2(토) 11시 30분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19번길 64)
김포 성당 주임 안규태 베네딕토 신부 집전

교 구 청

제4회 교구 청년 1945 창작생활성가제

"주님께 희망을 둔 이는

지칠 줄 모르고 걸어갑니다."(이사 40,31 참조)

일시: 11/24(주일) 15:00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5-6964

550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12/1(주일) 13:30~18:3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교 육 | 미 사

24년 성서주간 '말씀의 잔치'

일시: 11/26(화) 10:00~13:00 부평1동 성당

강사: 정천 요한 사도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상: 전 교우

접수: 각 분당 말씀의 봉사자(가톨릭성서모임),
교구 성서사도직

마감: 11/17(주일)까지 (1인당-1만5천원)

문의: 032-765-6967 교구 성서사도직

cblm-incheon@naver.com

제1기 이승훈 베드로 성지봉사자 양성피정

일시: 11/14(목) 10:00~17:00

장소: 이승훈 베드로 성지기념관

대상: 성지 전례 및 순례해설 봉사 지원자(총 40명)

서류: 자기소개서(지원동기, 사진부착필), 교적사본

이메일(sungi@caincheon.or.kr)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간: 10/13~11/5

신청비: 3만원(신청확정 후 입금, 중식 제공)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학술연구발표회

사제성소, 함께 나누는 고민

- "인천교구 사제양성 실태조사"의 해석과 대화

일시: 11/1(금) 10:00 보니파시오 대강당

후원: 교구 성소국

문의: 032-930-8014 복음화연구소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1일 대피정

일시: 11/14(목) 10:00~16:00

14:30~16:00 미사·안수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강의: 김재덕 베드로 신부

문의: 032-761-6301 교구 성령쇄신 봉사회

목요 영성치유 아카데미(내·외적, 영적치유)

일시: 매주(목) 10:30~17:30

장소: 지혜의 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강사: 이창진 신부,

(이상기, 김완식, 고영민, 한영임) 회장

문의: 010-3248-9705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한라산 눈꽃 산행 접수 중)

자연순례: 11/21~23, 25~28(추차도),

12/1~3, 6~8, 14~16,

25/1/11~13, 16~18, 20~22

연말연시(한라산, 해님이, 해돋이): 12/29~25/1/1

대상: 개인, 가족, 분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영신수련 2박 3일 피정: 11/8~10

엄마와 딸(미혼) 피정: 11/23~24

장소: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문의: 010-6890-7223

노들담 찾아가는 '숨' 피정

대상: 청년이라면 누구나(청년회, 교리교사회)

일정: 평일 저녁, 주말 오후(조율 가능)

문의: 010-3930-6730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11/2(토)~3(주일), 12/21(토)~22(주일)

[3박 4일] 11/28(목)~12/1(주일), 12/5(목)~8(주일)

[8박 9일] 11/14(목)~22(금), 12/26(목)~25/1/3(금)

[40일] 12/14(토)~25/1/22(수)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00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사: 10/29 음악피정(인천 체나콜로 찬양팀)

문의: 010-5514-4077 회장 (담당-김중국 신부)

가정선교회 11월 피정 및 미사

일시: 12:30~17:0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명동대성당 교스트홀

11/2(토)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도 미사: 박현배 신부

11/13(수) 성가정 영성 피정: 송봉모 신부, 한철호 신부,

김재덕 신부, 이현주 회장 (회비-1만원)

11/16(토)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윤민재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교구 체나콜로 미사

일시: 10/28(월) 작전동 성당

(12:30 찬양, 13:00 성체 안에 체나콜로 기도, 14:00 미사)

준비물: 미사도구, 묵주, 메세지 책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

일시: 11/1(금) 주안1동 지하 소성당

문의: 031-884-0533

청연 성당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

일시: 11/2(토) 16:00 음악치유팀 SOL과 함께

11/3(주일) 11:00 미사만

장소: 청연 성당

문의: 032-832-2361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모 집 | 일반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남자 어르신 케어 요양보호사

문의: 010-7171-9503

교구 운영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방문 및 온라인 위치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접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부개2동 성당 추모관 위패 신청자 모집

천주교 신자면 누구나 가능(타 교구 신자 가능)
 돌아가신 분은 타 종교, 무교 상관없이 가능
 일시: 매월 2, 4번째 주(수) 10:00 미사
 (위패 연령을 위한 개별 미사 지향)
 신청금액: 1명(2백), 2명(2백), 3명(3백), 4명(4백)
 살아 계신 분도 신청 가능
 문의: 032-505-2048

국제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2개월 이상 정기적 봉사활동이 가능한 분
 대상: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있는 청소년 및 성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람
 문의: 032-290-2701~2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신청 방법: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소식-교구소식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안내’ 게시물 참조

글라셋선교수도회 심리상담

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 부적응, 이주민 자녀 진로상담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상담료-1회 1만원)
 장소: 부천시 심곡본동 608-7
 문의: 010-7794-603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 입양 상담 www.holyfcac.or.kr
 문의: 02-764-4741~3

25학년도 박문여자고등학교 학교설명회

일시: 10/31(목) 18:30 박문여고 2층 강당

산자연중학교(대안교육) 학교설명회

일시: [2차] 11/2(토) 14:00
 대상: 현재 초6, 중1
 전·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https://school.gyo6.net/sanjayeon> 참고
 문의: 054-338-0530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입학전형: 12/2(월) 14:00
 원서접수: 11/4(월)~15(금) 17:00
 문의: 02-3147-8156 대학원 교학팀
 02-3147-8664 조교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기관
 원서접수: [전기1차] 10/28(월)~11/28(목) 17:00까지
 [전기2차] 25/1/6(월)~23(목) 17:00까지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철학/신학,
 62학점(수업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교회법,
 88학점(수업료 50% 감면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
<https://gscl.catholic.ac.kr/gscil/index.do>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모집: 10/28(월)~11/10(주일)
 면접: 11/22(금)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43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영어연수

국가: 캐나다, 필리핀
 대상: 청소년캠프, 가족캠프, 성인 및 대학 여학연수
 문의: 053-593-1273 국제교류팀
 (화상영어 수업 접수 가능)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상시 모집
 신설강의, 수료이벤트, 다양한 무료 콘텐츠 제공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예수성심 강화·김포 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문의: 010-5245-9300

24 가톨릭뮤직페스타 행사

가톨릭성가인들의 다양한 축제 한마당,
 모차르트대관식 미사곡 연주, 가톨릭성가대 코랄콘서트
 일시: 11/2(토) 입장료-1만원
 장소: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순례 | 기타**해외 성지순례**

12/10 출발: 라방, 짝깨우 성모발현성지 [5일]
 지도사제 동행(미사)
 문의: 010-5909-5997

전국167, 제주 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 120만원
 문의: 010-4239-1929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3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25/1/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5/3/14 이태리 수도원 순례 및 명소탐방
 [12일] 560만원
 25/3/28 사도 바오로 발자취(터키,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해외 성지순례

25/2/10, 3/17 이탈리아 일주 (히브 전대사)
 25/2/11, 3/25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25/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25/3/10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참고 www.catholictravel.co.kr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해외 성지순례

25/1/3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95만원
 25/1/13 스페인 남부 [7일] 375만원
 25/1/13 성모발현지 피정 [12일] 47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교구 성지순례, 성베네딕도수도원 탐방

12/7~10 부산 8곳~마산 6곳,
 12/14~17 대전 23곳
 출발: 서울 명동 (1인-45만원)
 문의: 010-3807-1784

성소모임**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새로운 가족을 모집
 대상: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문의: 010-5195-3217 성소부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장희영 시몬
1996.11.2 선종



류시명 도미니코
2009.11.2 선종

